해외 연수보고서

2018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2018. 1. 8.(월) ~ 1. 15.(월) -

2018. 2.

파 주 시 의 회

목 차

Ⅰ. 개 요 ····· 1

1. 방문 개요 ····· 1
2. 방문 일정 ····· 2
3. 국가정보 ····· 4
   (1) 네덜란드 개황 ····· 4
   (2) 독일 개황 ····· 5
   (3) 유럽연합 개황 ····· 6

Ⅱ. 방문내용 및 시사점 ····· 7

1. 알스미어 꽃경매장 ····· 7
2.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 10
3. 토마토 월드 ····· 13
4. 열병합 발전소 ····· 15
5. 발도로프 학교 ····· 18
6. 프랑크프르트 전통시장 ····· 23
7. 주민복지시설물 등 ····· 25

Ⅲ. 총 평 ····· 27

- 강평 및 제안

Ⅰ. 개요

1. 방문 개요

○ 기　　간 : 2018. 1. 8.(월) ~ 1. 15.(월), 6박 8일간
○ 지　　역 : 네덜란드, 독일
○ 목　　적

-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파주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조성 기회 마련
- 선진국(독일, 네덜란드)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 운영방식,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향후 활성화방안 모색
- 자전거의 천국' 네덜란드의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을 살펴보면서 파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해법 모색
- 유럽농업구조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농업인의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함
-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생활의 환경을 변화하고자 함
-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럽의 변화들이 우리와 일치하는 생각들로 앞서 시도 했던 유럽 농업의 변화를 벤치마킹 필요성이 있음.

○ 연수대상자

연번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파주시의회	의　　장	이 평 자	
2	파주시의회	부 의 장	박 희 준	
3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 명 규	
4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김 병 수	
5	파주시의회	의　　원	나 성 민	
6	파주시의회	의　　원	윤 응 철	
7	의회사무국	의　　원	박 재 진	
8	의회사무국	의　　원	박 찬 일	

연번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9	파주시의회	국 장	박 찬 규	
10	파주시의회	의 정 팀 장	조 우 현	
11	파주시의회	주 무 관	정 혜 선	
12	파주시의회	주 무 관	이 웅 진	
13	파주시의회	주 무 관	권 순 우	

2. 방문 일정

일자	행선지	시간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1/08 (월)	인 천 암 스 테르담	05:00 09:00 14:0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 공항 도착후 입국 수속 - 공식방문1 [알스미어 꽃경매시장 방문] ▣ 전자동화 시스템 견학 ▣ 물류 연계 시스템지원제도 ▣ 국가간 연계한 물류지원 서비스 ▣ 경매시장의 활성화 방안 견학 현장견학 1) - 잔세스칸 농촌마을 시찰(치즈공장 등)	
제2일 1/09 (화)	암 스 테르담	09:00 14:00	- 공식방문2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 방문] ▣ 도서관 활성화방안 ▣ 지역의 청년 연계 지원제도 ▣ 지역과 연계한 도서관공간 지원 ▣ 주민을 위한 제도 활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견학 담광장, 안네프랑크하우스(외관), 반고흐미술관, 네들란드 운하 및 캐널시티 견학	
제3일 1/10 (수)	암 스 테르담	09:00 14:00	- 공식방문3 [토마토 월드 방문] ▣ 친환경 농업 방식 견학 ▣ 재배온실 방법 체험 ▣ 품종별 재배 기술 도입 ▣ 지역농민과의 협동조합 방식 시스템 견학 현장견학 2 - 도시계획 사례 - Eastern Docklands 주거단지 답사 · KNSM, Java-Island, Boroneo, Entrepot-West - MVRDV 설계 주거단지 답사 · Silodam, WOZOCO's APT, Parkrand Housing	

제4일 (목) 1/11	암 스 테르담 프랑크 프루트	07:00 11:00 14:00	공항으로 이동 암스테르담 출발 프랑크 푸르트 도착 프랑크프루트 시청사 방문 뢰머광장,성바울성당 괴테하우스 보행자 전용다리인 아이제너슈텍 견학	
제5일 1/12 (금)	프 랑 크 프 루 트 프 라 이 부 르 그	08:00 11:00 14:00 16:00	프라이 부르그로 이동 - 공식방문4 [쓰레기 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소 방문]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 열병합 발전소 설비 견학 ▣ 주민과 협력 방식과 산생 방안모색 ▣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법 견학 프라이 부르크 주요 도심재생(환경)관련 시설 브리핑 보봉단지.쉴리어베르크,태양광시설 등 - 공식방문5 [발도로프 학교 방문] ▣ 학교 교육방식과 현장 견학 ▣ 특성화 수업의 방식과 교육제도 견학 ▣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견학 ▣ 취업과 학업의 진행과 수업방식 비교	
제6일 1/13 (토)	프 라 이 부 르 그 칼 스 루히에 프 랑 크 프 루 트	08:00 11:00 14:00	칼스루히에로 이동 현장견학 3 - 칼스루에 전통시장 탐방 하이델베르그로 이동 하이델베르그 고성(내부입장) 철학자의길,학생감옥, 구시가지,대학가거리 등 하이델베르그 프랑프프르루토 이동	
제7일 1/14 (일)	프 랑 크 프 루 트 암 스 테르담	09:00 11:00 14:00 18:35 19:45 21:20	독일 포도주 원산지인 뤼데스하임으로이동 니더발트 전망대 로마와 게르만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있는 게르마니아 동상 현장견학 4 - 프랑크프루트 전통시장 탐방 프랑크프루트로 귀환 프랑프프루트 출발 암스테르담 도착후 암스테르담 출발	
제8일 1/15 (월)	인 천	17:00	인천 국제 공항 도착후 해산	

3. 방문 국가정보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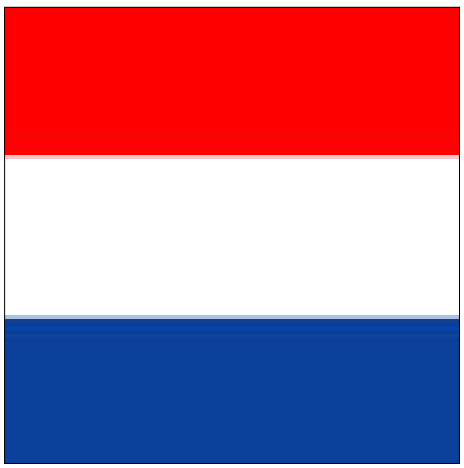
일반현황

○ 수도 : 베를린(Berlin)
○ 인구 : 약8,267만명(2016년 기준)
○ 기후 :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 면적 : 356,885㎢(한반도의 약 1.6배)
○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 주요언어 : 독일어
○ 종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주요내용

○ 여름철 최고기온이 25℃ 내외, 겨울철 최저기온은 -1~ -2℃ 내외 임.
○ 행정구역 : 16개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가 19세기 후반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단일국가를 형성함으로서 州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임.
○ 시 차 :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늦고, 서울이 정오이면 독일은 새벽 4시임.
○ 음 식 : 대표적인 먹거리는 소시지와 감자요리, 맥주임. 소시지·치즈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다하며, 야채셀러드, 식초에 절인 양배추 등.
○ 중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로맨틱가도와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 다양한 맥주와 게르만 민족의 나라, 더불어 동·서독 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지며 전체 면적은 356,885㎢ (한반도의 약 1.6배)이다. 북부 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 EU국가의 중심지

네덜란드



일반현황

○ 수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 인구 : 약1,702만명(2016년 기준)
○ 기후 : 서안 해양성기후(년평균 기온 11℃)
○ 면적 : 41,548㎢(한반도의 약 1/5)
○ 주요도시 : 헤이그(Den Haag), 로테르담 (Rotterdam), 유트레히트(Utrecht)
○ 주요민족 : 네덜란드인(Dutch)
○ 주요언어 : 네덜란드어(Netherlandic)
○ 종교 : 기독교, 카톨릭

주요내용

○ 유럽의 북서쪽에 위치,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있음.

○ 국토의 약 25%가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 위치, 북쪽지방이 주로 저지대.

○ 기　후 :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포근한 해양성기후.

○ 독일과 같이 변덕스럽고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음(연평균 강수량 700mm).

○ 여름철 평균기온이 17℃ 내외, 겨울은 2℃ 정도임.

○ 정　치 : 내각책임제의 입헌 군주국. 주요산업은 서비스, 금융, 전기, 선박.

○ 언　어 : 화란어를 쓰나, 영어, 독일어, 불어도 통용됨.

○ 국민소득 : 2만 5천불을 상회, 유럽사회에서 작지만 선진복지국가임.

○ 1653년 선원 하멜이 조선에 표류하고 1666년에 하멜 표류기를 발표하여 서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린 것이 바로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관계의 시작이었다. 또한 국민소득 4만2천불을 상회하는 유럽사회에 있어서 당차고 알뜰한 선진복지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 정치형태는 내각 책임제의 입헌 군주국으로 15인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산업은 서비스 산업, 금융, 전기, 선박이며 주요 교역국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이다.

○ 유럽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있다. 총 면적은 41,548㎢(한반도의 약 1/5)으로 전 국토의 25%가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지역으로는 저지대가 계속 이어진다.

유럽연합(EU)

○ 설립연도 : 1957년

○ 목　　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 가입국가 : 27개국(2016년 현재)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

○ 원래 EEC(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가입.

○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남.

○ EU의 역사는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는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설립.

○ 통화 : 유로(EURO)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단일통화의 이름.
통합유럽 단일통화의 명칭은 지난 1979년 이래 에쿠(ECU)를 써왔으나 독일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이 유럽을 뜻하는 『유로』로 쓸 것을 제안, 1995년 12월 마드리드 정상회담 때 최종 확정.

Ⅱ. 방문내용 및 시사점

1. 알스미어 꽃경매장

방문현황

○ Flora Holland 알스미어(Aalsmeer) 화훼경매시장은 수도 암스테르담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19.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810,000㎡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 Flora Holland는 6개의 경매장(Aalsmeer, Naaldwijk, Rijnsburg, Venlo, Bleiswijk, Eelde)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의 규모가 가장 넓으며

○ 규모화를 통해 세계 화훼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화훼협동조직인 Flora Holland와 알스미어 합병하였다.

○ 화훼협동조합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훼협동조합이자 경매장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설립한 지 103년이 되었다. Flora Holland 화훼협동조합은 2008년 세계 1위 화훼협동조합인 Aalsmeer(알스미어)와 세계 2위 화훼협동조합인 FloraHolland가 합병하여 탄생한 것으로 네덜란드 화훼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 Flora Holland 화훼협동조합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훼협동조합이자 경매장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설립한 지 103년이 되었습니다. Flora Holland 화훼협동조합은 2008년 세계 1위 화훼협동조합인 Aalsmeer(알스미어)와 세계 2위 화훼 협동조합인 Flora Holland가 합병하여 탄생한 것으로 네덜란드 화훼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 Aalsmeer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알스미어라는 도시의 조그마한 카페에서 시작, 신선하고 품질 좋은 화훼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경매장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변에서 다른 경매장이 생겨나 두 경매장이 함께 운영되고. 두 경매장은 1968년에 합병되었으며 1972년에 현재의 경매장이 생겨났고 지난 2008의 합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협동조합의 명칭은 Flora Holland로 사용하고 있으며 로고는 Aalsmeer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Aalsmeer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알스미어라는 도시의 조그마한 카페에서 시작하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화훼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경매장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변에서 다른 경매장이 생겨나 두 경매장이 함께 운영되며 두 경매장은 1968년에 합병되었으며 1972년에 현재의 경매장이 생겨났고 지난 2008의 합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협동조합의 명칭은 Flora Holland로 사용하고 있으며 로고는 Aalsmeer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방문목적

○ 농업 유통비용 절감 및 산지 출하 형태의 품질 유지를 위해 거래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견학 하고자함.

○ 매장의 규모는 40만평으로 파주시의 농업들의 조직과 유통 관계를 배우고 농장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전량 출하해야 하며 이에 대해 철저하고 냉정한 관리를 벤처마킹 하고자 한다.

○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내고 이를 통해 회원 농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 아침 일찍 경매장에 나오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줄이고 편리하게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분화는 50%가 인터넷으로 경매되며, 절화는 15% 정도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배우고자함.

• 경매장 입구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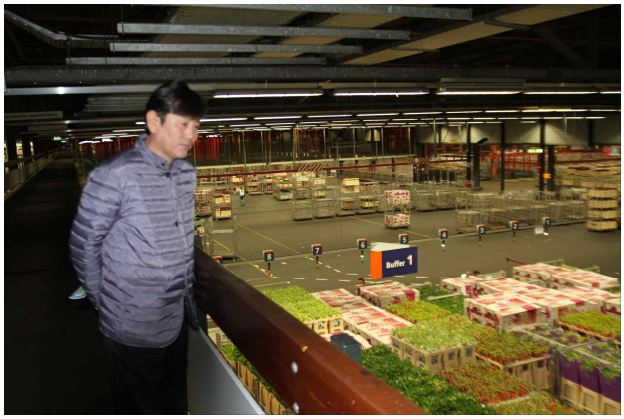
•화훼 자동화 시스템



• 경매장의 입찰과정



• 품목별 경매절차 과정



경매장 견학

○ 1912년첫 경매를 시작하였고 현재 시설규모는 축구경기장 100개와 맞먹는 74만㎢로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1일 8천만 송이의 꽃과 2백만개의 화분 유통) 시설에 놀라웠다.

○ 세계최대 화훼 경매시장으로 네덜란드 화훼유통 45%를 처리하고 있으며, 제2의 경매장은『훌로라 경매장』으로 약 40%를 처리, 화훼류의 경매는 현장경매(응찰자 참여)가 약 20%, 인터넷 경매가 80% 점유하고 있다.

○ 경매장 내에 3,0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알스미어 화훼연구소』가 있으며, 여기서 1종의 백합을 500여종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 연구 활동 활발, 전자시스템으로 경매가 이뤄지며, 응·낙찰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 모든 화훼류는 경매장을 통해서만 유통되며, 조합에서 규정한 재배·수확·출하규범을 준수해야하고 품질등급은 생산자가 부여하며, 만약 불성실하게 등급을 메겨 적발되는 경우(최대 3회) 조합에서 퇴출한다고 한다.

2. 암스테르담 공공 도서관

방문현황

○ 직 원 수 : 약 80명(2교대)

○ 주요업무 : 분관을 합쳐 26개의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덜란드 도서관 중에, 2007년 개관한 중앙관은 암스테르담 중앙역근처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서관으로 이용자가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룸, 회의를 위한 미팅룸 등을 제공함

○ 개관시간 : 주중, 주말 10:00 ~ 22:00

○ 소장자료 : 120만종 이상(도서는 64만권)

○ 주요시설 : 전시라운지, 예술관련 서적, 다양한 위한 어학코너회원가입 및 자료대출 서비스

○ 회원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름.
단, 19세까지는 모두 무료 서비스이고 저소득층은 20%의 요금으로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여행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유료 가입

○ 자료는 서비스 등급에 따라 3주 동안 5~8개 자료(도서 및 잡지, 비도서 포함) 대출 가능

○ 1,000석 이상의 열람석 가운데 절반 가량에는 인터넷이 접속된 컴퓨터를 설치, 모바일 단말기에는 와이파이 시스템을 도입

○ 게임이나 DVD를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룸, 각종 회의를 위한미팅룸, 그리고 2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설된 시어터 등 시설구축

○ 주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기획 운영하며 영화나 연극은 회원제로운영

○ 대출, 반납은 무인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두 자동화

○ 컴퓨터 등 특성화된 기술을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

○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코스를 다운로드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실 운영

방문목적

○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과 더불어 만인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도록 이용성이 뛰어난 문화시설 배우기 위함.

○ 다기능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도서관의 미래상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파주시의 도서관과 비교 견학

○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배우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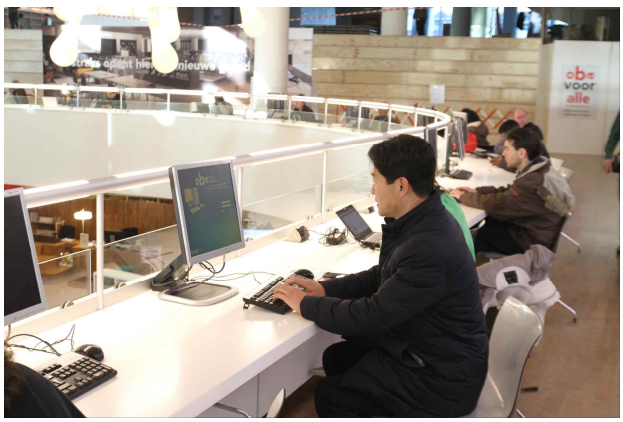
• 도서관 입구 기념촬영



• 다양한 책들의 배열



• 편리한 인터넷 검색



• 쾌적한 도서관 내부



연수내용

○ 중앙역 근처에 개관한 중앙관은 유럽 최대 규모의 시설로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과 더불어 이용성이 뛰어난 문화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 예술적인 건축디자인, 내부인테리어, 조명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의 소장을 지향하고 이주민을 포용하는 서비스를 추구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어우르는 도서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919년 네덜란드 유명한 건축가인 요 쿠넨이 설계를 맡아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천연석이 깔린 커다란 비석이 있는 파사드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힘 있고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이 건물을 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준다.

○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관내는 통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리로 된 창, 구간을 나누는 유리칸막이가 사용되어 2007년 개관하였으며,

○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전체 장서는 단행본 64만 권을 포함하여, 약 120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 다민족 도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주민을 위한 어학코너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한다.

○ 디지털 자료(CD, DVD)의 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으며 예술관련 서적 컬렉션 및 악보 자료를 소장 개관당시 사용했던 나무서가에 네덜란드 유명작가 코너를 마련하여 영구자료로 비치하고 있다.

○ e-book은 특히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의 신문,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코스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여 교육하고 있고 18개국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 도서관의 고유한 기능과 더불어 만인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도록 이용성이 뛰어난 문화시설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도서관의 미래상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하다.

○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민을 위한 어학자료실을 운영 언어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쉽고 편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전환 유도한다.

○ 파주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암스테르담 토마토 월드

방문현황

○ 암스테르담 인근 시설온실밀집지역 (Westland, 웨스트랜드)에 위치한 시범 농장. 토마토와 관련된 종자, 시설, 에너지처리시설 등 시설농업을 전시, 교육장

○ 네덜란드는 누구나 알듯이 선진국이면서도 국민소득의 70%정도가 농업 소득인 농업 선진국가로 6차 농업 산업에 발달

○ 토마토 월드는 네덜란드에서도 규모가 있는 토마토 재배 집단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농가가 필요로하는 정보를 연구하는 재배단체 연구 시설.

○ 네덜란드의 CO2공급관에 대한 설명과 온실이 집중되고LNG가스 뿐만 아니라 CO2까지 농가에 공급되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 뱅크플랜트: 천적이 살아가기 위한 생태환경으로 먹이 공급을 위한 식물. 뱅크플랜트에서 진딧물등을 키워서 천적이 온실안의 먹이를 다 소비하더라도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작물토마토의 효능, 토마토 재배과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

○ 태풍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 유리온실 선택

○ “Tommies” 토마토 상품명으로 네덜란드 시장 유통 재배면적 : 7ha 시작 → 현재 45ha

방문목적

○ 토마토의 유익성과 재배과정을 알리기 위한 교육장으로 6개 토마토온실 재배대표들이 조합을 만들어 80여종의 토마토를 직접재배하여 전시, 시식, 판매 등 홍보를 위해 체험하고 배우고자함.

○ 다양한 ICT 기술을 이용한 환경제어, 농업6차산업에 접목하고자함.

○ 지열, LED, 등 대체에너지, 친환경재배(천적이용), 배액재사용(저수조 빗물 이용) 등 (친환경농법) EU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유통과정을 보고자 함.

○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지로 친환경 농업법 견학.

• 토마토 품종별 재배시설 연구실



• 비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 토마토월드 관계자 미팅



• 토마토월드 입구 기념사진



연수내용

○ 최고의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온실+재배전문가가 전문교육이 체계적이며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 ICT 기술을 이용한 컴퓨터제어와 농가의 노력 합쳐지는 시너지 효과 필요하다.

○ 종자 시범 농장. 토마토와 관련된 종자, 시설, 에너지처리시설 등 시설농업을 전시, 전문 교육 활성화를 해야 한다.

○ 전문기술재배를 통한 지속적인 토마토 연구와 품종 개발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연구하는 소통의 공간 및 조직이 필요하다.

○ 새로운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농법방식을 검토, 확인하는 과정 필요하다.

○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 유리온실 사용에 대한 장단점 파악 및 검토를 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독일 열병합 발전소

방문현황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산업보다는 환경 정책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다. 2030년까지 열병합발전 비중 25%로 확대

○ 독일은 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전력 비중을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열병합발전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열병합발전이란 한 발전소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뜻한다. 먼저 연료를 태워 터빈에 돌려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든다. 이 수증기는 증기 터빈을 가동시킨다. 화력과 수증기로 작동하는 2개의 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한편, 여기서 발생한 열을 버리지 않고 지역 난방에 사용한다.

방문목적

○ 열병합발전은 연료 사용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친환경 발전으로 파주시에 적합한지 견학하고자 함.

○ 독일의 열병합발전 연료로 쓰레기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거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 방향을 보고자 함.

○ 열병합발전은 신재생발전의 보완적 발전 방식이다. 풍력·태양열 발전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한다. 날씨에 따라 공급 전력량과 전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꾸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해서 처리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 목적이 있다.

○ 독일에 송전탑과 전기줄이 없는 점도 열병합발전 때문에. 열병합발전은 지역발전이라 원거리 송·변전이 불필요하다. 근거리 전기·열 공급은 땅 속 배관을 통해 이뤄지는 과정 확인

○ 독일은 열병합발전 보급을 넓히기 위해 연간 15억 유로(약 1조8400억원) 한도로 열병합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 전력의 규모에 따라 kW당 지원금을 매겨 설비 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비용에 대해서도 견학하고자 함.

○ 원전사고로 인한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자 함.

• 열병합 발전소 전경



• 관계자 열병합 발전소 설명



• 쓰레기 소각장 중앙 관제소



• 열병합 시설 관계자와 기념 촬영



연수내용

○ 독일은 신재생발전의 불완전한 에너지 공급을 채우기 위해 열병합발전 공급을 확대한다. 독일은 현재 16%(9만4000GWh, 2015년 기준)인 열병합발전 비중을 2020년 21%, 2030년 25%로 늘린다.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에너지 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난방·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 열병합발전소다.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나왔지만 별다른 악취는 없었다. 액화천연가스(LNG)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와 달리 공해물질이 훨씬 적게 나온다.

○ 독일 정부는 2000년 이후 열병합발전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80.7%로 일반 발전소 평균(49.9%)보다 높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16%(2015년 기준)인 열병합발전 비중을 2021년까지 21%로 늘릴 계획이다.

○ 독일 열병합발전의 주 연료는 LNG다. LNG 단가는 석탄의 3~4배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판매시장에서 열병합발전 전기료는 석탄발전 전기료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독일 정부는 열병합발전소가 전기료를 낮춰 판매할 수 있도록 2㎿h 용량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1㎾h당 3.1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관설비 등 시설투자금에 2000만유로 한도 내에서 배관 1m당 100유로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독일에서는 열병합발전을 친환경에너지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지원금을 주고 있다.

○ 독일 국민도 열병합발전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독일의 모든 전기 이용자는 1㎾h당 어느정도 전기료는 더해 납부한다. 돈을 더 내더라도 친환경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독일 국민이 많다.

5. 독일 발도로프 학교

방문현황

○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독일교육제도 골자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취학 전(3, 4세)의 교육의 확대
- 5세 아동의 입학
- 기초학교의 개편
- 의무교육 연한의 1년 연장(10년으로)
- 모든 학생들에게 질이 높은 중등교육증을 줌
- 후기 중등교육의 전문분화(專門分化)
- 직업교육기관을 거친 여러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혀 줌

○ 독일 교육심의회의 지지를 얻어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하나의 시도로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제학교(綜合制學校 : Gesamthochschlue)의 설립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모두 전통적인 독일의 학교제도상에 있어서의 여러갈래를 제거하고, 이를 통일화의 방향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루돌프 슈타이너 (1861-1925)는 당시 하나의 새로운 사회구성의 실현을 위하여 이 학교를 창설하였다. 어린 인간들은 사회적인 출신이나, 능력(재능) 또는 미래의 직업에 관계없이 공동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능력, 자신 삶의 이상과 시대의 사회적 삶을 위한 자각심을 발달시킬 수 있다.

○ 종합학교로서 이 발도르프 학교는 수평적인 학교체계 안에서 연계되는 교육 원리의 정수(精粹)를 교육의 장려로서 보완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12학년을 유급 없이 공부를 하게된다. 모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계획)은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적인 소질과 재능을 중심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 이를 위하여 (그러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일반적인 과목과 함께 다양한 예술적

인 수업들이 시작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각각의 인간들과 사회를 위한 중요한 창조적인 능력과 체험력이 촉진되게된다. 교과과정(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또한 도덕적(윤리적)-종교적인 형성이다. 종교수업은 각기 종파의 또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자유롭고 기독교적인(초교파적인) 종교수업은 학교의 교사를 통하여 제공된다.

○ 발도르프 교육 교과과정의 결정적인 원리는 수업내용과 수업형태의 확정이 아이들 배움의 과정과 유년기와 청소년기안에 있는 인간발달의 단계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수업은 학교시작부터 인간내면의 자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학생 자신의 판단력이 먼저 성숙되는 첫 번째 8 학년간에는 “그림화(형상화)”된 수업이 매우 중요한 수업원리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학생들이 그림화(형상화)하는 것을 통하여 사물의 법칙들과 본질들을 순수한 그림들의 의미 안에서 이해하고 체험/체득하여 배우도록 행하여진다. 이러한 시기에 형성되는 영혼의 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정신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형상화를 통한 개념화로의 전개를 뜻한다.

○ 14세부터(사춘기) 시작되는 자신고유 삶의 형성과 판단력 형성을 이루고자 하는 내면적인 시도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9학년부터 12학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수업과목들의 학문적인 특성들이 적합하다. 여기에 발도르프 학교는 대학교 교육을 위한 (준비하는) 교육적인 과제를 갖고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교육적인 임무(과제)는, 수업이 젊은 인간의 삶의 문제와 함께 연결시킬 수 있으며 자신 삶의 물음점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수업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수업으로부터의 형성되는 힘을 활동적으로 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에포크 수업”이 있다. 이러한 수업은 과목들이 그 자체 안에서 한 단원 내지는 단원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는 과목들의 분야를 행하고 있다 (예로; 독일어, 역사, 수학, 자연과학 등등),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습이 요구되는 부문으로는 예로 예술적인 수업들, 영어, 불어, 러시아어(외국어는 1학년부터 시작)등은 전문수업시간 안에서 행하여진다.

○ 발도르프 학교는 또한 교육의 정수(精粹)로서 관례적인 성적평가체계를 없앴다. 발도르프 학교의 성적표에는 가능한 한 상세한 특성묘사(서술)가 들어있는데, 이

것은 아이의 성과 대한 진전상황, 개별 과목들에 대한 노력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발도르프 학교의 학생들은 다른 독일의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과정(10학년), 전문대학입학자격(12학년) 또는 일반대학 입학자격을 (13학년) 가질 수 있는 과정들을 졸업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주지방 정부의 교육규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기는 하고 이것 또한 일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 자립 학교로서의 발도르프 학교는 공립학교의 계급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하향식) 외부로부터의 조종을 자유로운 제도를 통하여 대신 하였다. 그것은 교육적인 자율책임 안에서의 학교를 말하며, 이 책임은 그 지역의 학교법인이 가지게 된다.

○ 발도르프 학교 운영은 매주에 있는 동료간의 교사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교사전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며, 학교의 구성과 교육의 모든 문제들을 자문하며 이에 대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그 삶의 법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의 발달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은 공동체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 발도르프 학교/교육에 대한 세계의 학문적인 인정과 다른 공립학교와 법적으로도 동등하게 규정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이 학교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 교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방문목적

○ 학교 교육은 다른 모든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주위의 일반 공립학교 모델로부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이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자 함.

○ 독일 내에 68,5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162개의 발도르프 학교들에서는 한 교육구상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는 이 교육의 규정된 내용과 수업형태가 아이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에 관하여 각 아이의 요구에 맞게 수업하고 있는지 제도가 맞는지 연구하고자 함.

○ 학교에서 아이들의 개성 발달을 위한 것에 대하여는 이 발도르프 교육을 배우고자 한다.

○ 특성화된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점이다. 삼고 있다. 에 공립학교 체제 내에서 그 교육방법들을 배우고자 함.

○ 발도르프 교육은 개인(성)적인 발전의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오는 모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조화 발전 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도르프 교육의 이론을 배우고자 함.

• 교육 현장 방문



• 교육 현장 방문



• 교육 현장 방문



• 교육 현장 방문



연수내용

○ 8년의 담임시기 입학하여 1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한 교사에 의하여 담임으로서 진행된다. 이때에 그 담임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게된다; 형태 그리기(나중에는 기하학으로 연결되는 과목), 쓰기, 읽기, 언어학, 셈하기, 역사, 지구학, 물리, 화학, 자연학. 이러한 과목들은 소위 “에포크(주기)” 안에서 주요(主要)수업으로서 이루어진다. 즉 3-4주간 사이에 계속 매일 아침시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 과목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 전문교사들은 이외의 다른 과목들을 교육하는데 그것은 음악, 오이르트미, 수공, 작품, 체육, 영어, 러시아어(또는 불란서어,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기 있음), 종교 등이다.

○ 학교에 오는 아이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에 의하여 배우기를 원한다. 이는 사회적인 과정의 행위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이러한 것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도 이렇게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자기 스스로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 차별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한 부분인 것이다.

○ 나와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사물학(전문적인 과목)은 아이들이 느끼는 것에 연관지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 좋기는 연결성이 있는 이야기형태로 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하게 된다.

○ 직접 체험으로서의 농작수업 농작을 통하여 아이는 흙과 함께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된다. 이러한 농작과 추수를 한 이후에 아이들은 빵과 음식을 먹을 때 당시의 경험을 생각하며 먹게 된다. 과일 따기, 써레질하기, 씨뿌리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빻기 등등.

○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1919년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생겨난 그 생명력은 먼저 그들 각각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는 자율, 자립, 독립으로 이해된다. 공식 명칭인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이들을 연대하는 세계 기구들이 있으나 이것들은 종적인 관계의 체제가 아니고 모두가 독립체이며 그들 스스로가 연대하고 있다. 그 다음은 발도르프 학교가 사상이나 세계상 또는 인간상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어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배움을 터득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방법에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도르프 학교 생명력의 근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발도르프 학교와 남아프리카의 발도르프 학교 또는 인도의 발도르프 학교는 아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발하여 배움을 깨우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점이다.

6. 프랑크프르트 전통시장

방문현황

○ 소재지: 클라인막트할레 시장

○ 규　모: 대략 80여 점포

○ 대규모에 고기, 생선, 채소, 견과물, 꽃 시장 등 8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1879년부터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4년 새로운 건물로 시작, 5년 전 15백만 유로를 관할 시에서 투자하여 시설등을 재정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었음, 하지만 상인 및 고객들은 오히려 기존 시설 및 구성 등 전통이 남아있어 더 좋아함 상가형 전통시장으로 점포가 마치 전시장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 천장이 높아 기존 전통시장의 답답하고 지저분한느낌을 받을 수가 없음 독일슈퍼나 대형마트에서 보기 힘든 시식 및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 및 부위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독일 현지 소비자로부터 호평 받음. 상인들의 시장조합은 형성되어 있고 상인들이 스스로 지킬 것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 관리 지침 등은 따로 없음

○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에서 물건을 주로 판매하고, 2층에서는 물건판매와 카페테리아가 있어 구매한 물건을 바로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각종 향신료, 양념, 잼, 소세지, 고기, 생선, 생과일, 꽃, 커피,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형 마트에 재래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도 한다.

방문목적

○ 독일의 전통시장 구성과 상인 및 고객의 운영 방식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제도와 사례들을 보면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별적인 다양한 사업을 배우고자함.

○ 특화거리등 상권 활성화 와 운영체계를 통한 프랑크프르트 전통시장의 골목상권의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 정책적인 지원과, 특화시장을 어떻게하며 차별화를 어떤식으로 하는지를 배우고자 함.

• 실내 전통시장 전경



• 현장물품 점검



• 깨끗한 진열 매장



• 전통시장 기념촬영



연수내용

○ 독일의 전통시장 육성 정책에 맞추어 전통시장들을 단계적으로 특화시켜고 있다, 파주시지역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찾을 수 있는 테마파크화하여 파주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융합한 시장으로 육성 시켜 갈 필요가 있다.

○ 휴대폰 증가에 따른 모바일 쇼핑의 증가, 소비행태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 등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육성방안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 지역자원과 융합한 전통시장별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시장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나누어 주기식의 지원방안을 탈피하여, 집중과 선택 전략의 실현이 필요하다.

○ 파주시의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의 포화지 수가 많아 과당 경쟁 상태이어서 전통시장의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와 장옥, 화장실 등의 문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계속 개선해가고 있으나 위생 및 청결한 시장 환경조성 등의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다.

7. 주민복지관련 시설물 등

연수내용

○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 때문에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사실, 네덜란드는 국민 1인당 자전거 보유율이 세계 최고이며, 자전거의 교통분담률도 26%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 네덜란드 국민들은 세 살 때부터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일부 시 정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급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한 강의를 듣고 주행테스트와 같은 실제 훈련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 일반 시민이 주차를 위해 지상에서 주차하면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시스템의 주차장을 보면서 새로운 방식의 주차 시스템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다.

○ 재활용 분리수거를 보면서 미관을 예쁘게 하며 지하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공간활용을 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하공간을 잘 활용하는 유럽인을 보며 파주시도 도입하면 좋게 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 메르켈바흐Merkelbach상 수상 5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100호의 큐브 주거단지로 구성 100호중 87호는 기본 건물블록 구성하고 나머지 13호의 단위세대는 캔틸레버 구조를 사용하여 북쪽입면(피사드)에 각기 다른 크기의 목재 박스 다섯개에 분산되어 매달아져 있는 구조로 새로운 도시 재생건물을 볼 수 있었다.

• 지상에서 바로 지하로 주차하는 시스템



•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지하창고식



• 자전거 전용 관리 시스템



• 도시재생 현장 방문



Ⅲ. 강평 및 마무리

강평 및 제안

○ 먼저, 2018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 연수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연수를 통해 6대 의회에서 운영했던 관광진흥특별연구회,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연구회, 교육발전 연구회, 농업6차산업연구회에서 그간 다루었던 사례와 성과들을 재고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 이번 연수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진 시설 및 사례를 비교·연구 하고자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다.

○ 첫 방문지는 알스미어 화훼경매시장으로 화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최고의 화훼 품질을 유지하면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각 온실에서 키운 꽃을 종류별로 모아 구분하고, 다시 전 세계 각 지역으로 옮기기 위하여 쉼 없이 돌아가는 레일과 생산자와 품질을 확인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경매인들 등 그 규모와 자동시설은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파주시의 쌀, 콩, 인삼 등 농특산물 유통이나 판로개척 등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는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단순히 기계 설비 등 인프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는 유통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는 현장 경매 및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 꽃 등 화훼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 농특산물은 과거에 비해서 홍보 및 상품성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아직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알스미어 화훼경매시장에서 보듯 전체적인 인적 물적 시스템과 협동조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가 앞으로 농업6차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암스테르담 중앙역 옆 강가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대형 건물이 있다. 바로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이다.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적과 전시실, 멀티미디엄룸, 미팅룸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동선 및 자리배치가 사용자들의 편의위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였다. 대출, 반납은 무인으로 운영되며 도서관 특유의 딱딱하고 정숙한 이미지가 아닌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된 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 암스테르담 인근에는 온실로 된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 토마토 연구 및 생산으로 유명한 토마토월드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토마토 종자들을 개량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곳이 단순히 토마토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친환경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실제 온실 안에는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막아 80여종의 토마토를 직접 재배하고 있다. 비료 및 토양도 재활용이 가능한 압축 코코넛껍질로 사용해 사용전·후 오염이 전혀 없다.

○ 기업이 단순히 고품질의 토마토를 통해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조화로움 속에서 맛과 영양이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이 회사의 모토가 인상깊었다.

○ 네덜란드에서 독일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라 특별한 검문없이 국 경을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경제 허브 도시답게 중세적인 유럽의 느낌과 고층건물과 현대식 느낌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조화가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현대미를 더욱 돋보이는 모습에 역사를 수백 년간 전통을 유지한 시스템에 경외를 표하고 싶다.

○ 첫 견학지는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열병합발전소이다. 프라이부르그는 독일 남서부쪽에 위치한 도시로 21만여명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우리가 방문한 곳은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축소(폐기)정책에 따라 생겨난 친환경 열병합발전소(쓰레기 처리시설)중 하나였다. 시민들이 분리한 쓰레기를 수거한 후 이 곳에서 다시한번 구분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며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쓰레기를 화력으로 태우게 된다. 그리고 그 태운 열 에너지는 가정용 및 산업용 에너지로 판매되며 태우고 남은 것은 필터로 걸러 슬러지는 화학용 및 도로포장 등으로 재활용된다. 마지막까지 재활용이 불가한 물질은 폐광산 깊숙이 보관한다. 단순할 수 있는 이 체계를 철저히 반복하고 치밀하게 지킴으로써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도시의 우선적인 정책이자 기본 바탕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대중교통 및 자전거 타기 정책 활성화로 실제 프라이부르크 주민 90%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내 및 도심에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이 많아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유럽 특유의 시민의식과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겪은 경험 때문인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자주 볼 수 있다. 곳곳에 놓은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주요 중심지 및 관광지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 파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많다. 하지만 현재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타기를 취미로 하는 시민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처럼 일상에서 자전거를 타기 쉽지 않고, 도난이 많아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놓기에도 부담이 있다.

○ 어떠한 정책이 환경에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결국 시민의식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잔디밭을 밟지마시오’라는 푯말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밟는 잔디 위에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방법임을 깨달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꼭 필요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 이번 연수, 특히 파주시 교육발전 연구회에서는 유럽의 선진 교육제도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네덜란드는 연수기간 학교의 방학 등이 겹쳐 일정 잡기가 곤란했다. 차선책으로 독일에서 시작된 발도로프 학교를 찾았다. 발도로프 학교는 1919년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시에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처음 창설하였다.

○ 학교 정문을 첫 발걸음을 들이고 굉장히 놀랐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학생부터 고등학생정도로 보이는 모든 학생 얼굴에 웃음이 가득차 있었다. 가식적이고 일회성 놀이 및 게임으로 웃는 것이 아닌 지금 학교에서의 생활을 무척 즐기고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취해 나가고 있는 사람의 얼굴표정이었다.

○ 발도로프 학교의 특징은 1~12학년까지 유급없이 각 학년에 맞게 기하학부터 역사, 물리학 까지 다양하게 배운다고 한다. 수업 전에는 항상 시나 노래를 통해 감정과 심리를 차분하게 한 후 집중력이 높은 오전에는 수업을,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에는 신체 및 놀이 학습이 진행된다고 한다.

○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느끼고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교육방법으로 우선 관례적인 성적평가체계를 없앴다. 하지만 졸업생의 경우 실제 가능 언어는 3개 외국어 이상이 되며 체육 등 신체능력부터 예능·예술 분야까지 더 뛰어난 결과를 보인다.

○ 수업 중인 교실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다. 우리는 일편일률적인 책상과 의장에 학생들이 앉아 책상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생각하였지만 실제 광경은 학생들은 높은 스탠드식 책상에 서서 자신의 옷을 만들고 있으며 다른 교실에선 베이킹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체육관에서는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천장에 매달린 줄을 타고 회전을 하고, 친구들끼리 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등 우리네 교육방법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 현재 한국에는 서울, 안양, 인천 등 6개의 발도로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라는 인식과 일반 정규과정이 아닌 검정고시로 대입 시험자격을 가지는 과정에 학부모 및 평범하게 살기 희망하는 우리 사회와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 파주시도 나름의 특화된 학교시스템, 뛰어한 성적, 학생에 맞춘 각 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 등 각 학교만의 자랑이 있을 것이다. 부족한 교육환경에서 이렇게 우수한 학교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교육관련 관계자 분들과, 성실한 학생과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까지 감사할 따름이다.

○ 하지만 우리가 좀더 파주시의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어린아이와 학생들을 더 훌륭하고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을 답습시키지 않으려면 좀 더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를 배출하여야 한다. 그 시작을 발도로프 학교 교육 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다음 우리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프랑크프르트의 클라인막트할레 전통시장이다. 현재 파주시는 문산, 금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많은 방향으로 고심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점포 및 대규모 마트가 주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다양한 물건들도 있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선택의 폭이 넓으며 막연하게 대기업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높은 신뢰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농수산식품 대부분을 여기에서 구입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어떠한 정책을 펴고 전통시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하는지 궁금하였다. 우리가 방문한 클라인막트할레 시장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에 약 100여개 남짓한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설은 195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니 건물은 상당히 낡았으며 이 시장은 점포 상인들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고기류, 야채류, 과일류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래시장 모습이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먼저 한국 전통시장과는 달리 상품들의 진열이 깨끗하며 종류별로 보기 편하게 되어있었다. 보기 좋은 상품이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를 위한 것 같았다. 점포 중간 중간에는 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 시장을 돌아다니는 재미도 주었다.

○ 가장 주목할 점은 2층에 있는 점포였다. 2층에도 1층과 같이 다양한 점포들이 있었는데 매장에서 산 식료품들을 바로 옆 스탠드형 탁자에서 와인 및 음료들과 먹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 있는 식사는 조용하며 멋진 인테리어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북새통인 시장 거리에 서로간의 간격이 50cm에 불과한 공간에서 신선한 석화와 와인을 먹으며 웃는 모습은 진정한 서민을 위한 공간,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 파주의 전통시장 시설을 더 미려하고 웅장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소비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삶의 생활 그 자체가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2000년대의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1980~90년대 시장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1980~90년대 정감 있는 모습을 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야 말고 진정한 전통이 될 것이다.

○ 우리 의원들은 6박 8일간의 연수를 시작하며 도시재생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파주에 적용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연수 결과에 대해 정리하며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며 다시 한 번 도시재생의 의미를 논하였다. 표면적인 정의는 빠른 문명의 발달로 인해 낙후된 지역 및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물질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의 일환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벌써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 네덜란드의 특산품을 더욱 네덜란드만의 특별함으로 만들고자하는 조합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드는 화훼사업, 공공시설을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의 휴식과 교양의 장으로 만든 공간 활용, 농작물을 수익극대화의 목표가 아닌 깨끗한 환경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며 또한 유기농 음식 생산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모토로 삼는 농민들,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최첨단 폐기물 시설 건설만이 아닌 어려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분리수거 및 깨끗한 환경을 위한 교육, 시험 위주의 억압적 교육방식이 아닌 학생이 웃을 수 있고 자신만의

재능을 깨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개방적 교육시스템 등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연수단의 공통된 견해였다.

○ 또한 현재 파주시가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 견문과 교육을 접목함으로써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올바른 정책시행과 적재적소 예산투입이 되도록 성심껏 노력할 것이다.